

대한병리학회지 25년의 결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 제 근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 Review of the First 25 Years

Je G. Chi, M.D.

Department of Path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was first launched in 1967, marking the 20th anniversary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Pathologists in 1946. The first publisher was Professor Chae Koo Lee and the first editor was Professor Sang In Kim. What began as a semi-annual journal became a quarterly beginning in 1977. Now, in 1991, it is a bimonthly journal with an average of 14 articles per issue.

A total of 1,075 articles consisting of 8,624 pages have been published through this journal with more than 537 persons having joined authorship. Papers related to diagnostic pathology took a majority, and accordingly, articles of animal experiment and basic research were the minor. Because of low autopsy rate among Koreans papers on systemic and special pathology have not developed harmoniously, with particular deficit of cardiovascular pathology and special sense organs. Papers on gastrointestinal tract and hepatobiliary system predominate since early years of publication, indicative of prevalence of diseases related to those organ systems. Relative dominance of papers on pediatric pathology and teratology represents availability of postmortem materials of fetuses and infants in many hospitals, despite the extremely low adult autopsy rate. Papers using electron microscopy appeared first in 1972 and the first paper on cytopathology was published in 1977.

During the last 25 years o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two new related journals were born. The first journal was the Korean Journal of Clinical Pathology in 1981, and the second journal was the Korean Journal of Cytopathology in 1990. Two journal supplements, one of nationwide cancer statistics and the other of an accumulated total index, were accompanied. One issue in memory of the late Professor Yun Il-Sun was published in 1975.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is now a periodical registered as a quarterly journal to the Ministry of Culture(MA-1664), and its international standardized serial number is 0379-1149. It is indexed in *Excerpta Medica* since 1990. It is hoped that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will become an internationally referenced periodical approved by eminent international indexing systems such as *Index Medicus* and *Science Citation Index* in the nearest future.

접 수: 1991년 8월 7일, 게재승인: 1991년 11월 11일
주 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건동 28, 우편번호 110-744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지 제 근

머 리 말

대한병리학회지가 창간된지 올해로 25년이 되었다. 외국의 병리전문지에 비하면 비록 짧은 세월이지만 우리나라 학문이 걸어온 어려운 길을 감안하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다. 대한병리학회지는 그동안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면서 한번의 결본도 없이 꾸준히 발간한 결과 이제는 당당히 격월간 국제적 학술지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역대 발행인과 편집인들을 비롯한 편집위원등 그리고 회원들이 한 마음이 되어 힘을 기울여온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 학회지의 일획을 긋는 창간 4반세기초를 맞이해 지난 25년을 돌이켜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더듬어 볼 때가 된 것 같다.

이 논문의 자료는 1967년부터 발간된 대한병리학회지를 토대로 했다. 다행히 창간호 부터 현재까지 결본 없이 재본된 것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초창기의 정보는 개인적 교신과 당시 편집을 대행한 여문각의 대표인 장석태씨의 도움을 얻었다. 역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따로 정리 보관된 것이 없어 학회지에 실린 회무보고에 의존했다.

대한병리학회지의 창간

대한병리학회지(이하 학회지)의 창간호는 1967년 9월에 발간되었다. 우리나라에 현대의학이 들어온지 80여년 그리고 1946년 대한병리학회가 창설된지 만 20년이 지난 뒤였다. 1961년 12월 학회 평의회에서 학회지 발간을 결의하였고 1966년 10월 총회에서 다시 구체적으로 논의해 편집위원 이재구, 김기홍, 홍석재, 이종무, 이상국, 김상인 교수 등 6명이 중심이 되어 1967년 9월 30일 역사적인 창간호를 내놓았다. 창간호에는 학회장(이재구)의 창간사와 명예회장(윤일선)의 축사와 그동안 작고하신 원로 회원 즉 1963년에 별세하신 이화대학의 병리주임교수였던 현인섭 교수와 1964년에 별세하신 서울의대 이성수 교수의 사진과 약력이 소개돼 오랫동안 학회의 기관지가 없었음을 실감케 하고 있다. 창간호에는 또 대한병리학회의 간단한 연역이 실려 있어 학회창립 이후 그때까지의 주요 행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기술 하였다.

창간호는 6편의 논문과 함께 1959년부터 1962년까지의 학술대회 연제 및 초록, 학회회칙, 역대임원 명단, 그리고 회원명단을 게재하여 105쪽에 이르는 문자 그대로 학술지를 겸한 기관지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지금의 녹색 표지도 그때 시작한 것이다. 다만 학회의 명칭이 한문으로 표기된 점이 달랐다. 물론 당시 인쇄는 활판으로, 종이는 모조지를 썼고 사진은 아트지에 별도로 인쇄를 하여 재본하였다. 편집대행은 당시 우수한 의학전문 상업잡지였던 중앙의학사에서 맡았다. 초대 편집위원장은 김상인 교수로서 이후 3년간 편집책임을 맡았을 뿐 아니라 그후도 9년간 계속 편집위원으로 학회지 정착에 노력한 자취가 기록을 통하여 나타나 있다.

학회지의 변천과정

1. 표지

진초록색 절장의 색깔이 대폭 벌어지면서 학회지의 명칭을 한글로 바꾼것은 1973년으로서 7권 1호부터였다.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바뀌게 되었는지는 당시 상임위원회의 기록에 없다. 그뿐 아니라 이해부터는 표지에 실리던 게재 논문제목 및 저자 목록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표지에는 잡지명과 발행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가 7권 2호부터는 절장에 편집위원 명단이 실렸다. 7권 2호에는 표지 제자를 한글서예가 권오실 선생님이 써주었다는 편집후기가 나오고 또 이때부터는 편집위원 명단이 한문으로 표지에 인쇄되어 한글로 바뀐 학회지 이름과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돌이켜 보면 1973년은 학회내에서 해부병리와 임상병리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던 시기였고 긴급 상임위원회가 열리는 등 학회의 기타 업무에 분주한 나머지 학회지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던 것 같다. 실제로 1973년은 1년 통털어 총 11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창간 이래로 가장 게재 논문수가 적었고 그나마 2호의 발간이 10월 대신 12월로 늦어진 것으로 보아 학회지 주변이 꽤 어려운 시절이었던 것 같다. 그뒤 표지의 색깔농도가 매호마다 달라 1986년 현재의 암록색 내지 녹색으로 바뀔 때까지 일관성 없이 발간되었다. 1982년에 학회마크가 결정되면서 학회지 중앙에는 커다란 학회 마크를 집어 넣었다. 1990년 들어와 그동안 미루어왔던 문공부 등록(1990년 2월 26일 마-1664)을 마쳐 학회지 발간

24년만에 합법적 간행물로 등장했다. 따라서 1990년 24권 1호부터 길장에 문공부등록번호를 인쇄했다. 한편 1991년 대한의학회를 통하여 ISSN(International Standardized Serial Number 0379-1149)를 받아 국제적으로 공인된 학술지로 등록되었고 *Excerpta Medica*에도 등재되기 시작하였다.

사진이 중요한 병리계통 논문에서는 선명한 인쇄를 위하여 옵셋 인쇄를 하고 지질의 경비문제로 결단을 유보하다가 1985년부터 전 지면을 아트지로 인쇄해 현재까지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2. 발간횟수

창간당시는 원고가 넉넉치 않았다. 창간년도인 1967년에는 1년에 2번 나왔지만 실린 논문수는 6편 뿐이었고(Table 1) 나머지는 그동안의 학술대회연제 및 초록으로 메꾸었다.

원고수는 점차 늘어나 1976년에 이르러 년 33편의 논문으로 283면을 발행하였다. 1977년에 년2회에서 년4회 즉 계간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1977년 4월 1일 11권 1호가 발간되었다. 여기에는 4편의 원저와 4편의 증례보고가 발표되었는데 정창수 교수의 역작인 "정규모집단의 임의표본에 의하여 정한 정상범위의 정도"가 게재되었다. 한편 학회지 발간에 큰 몫을 하여 오던 것이 춘추계학술대회 초록집이었는데 초록은 별도 면수로 반드시 학회지에 포함시켰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이르러 학술대회 초록을 분리하여 학회지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하였다. 1991년 부터는 격월간으로 연 6회 발간 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다(Table 2).

창간때부터의 고전적 병리학 분야와 더불어 비교적 근래에 와서 발전한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학자가 늘어감에 따라 편의상 병리학이 미국식의 해부병리와 임상병리로 나누어지는 경향을 띄게되었다. 특히 1963년 전문의 제도가 창설되면서 해부병리와 임상병리의 수련과정이 분리되었고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으로 대한병리학회지에 최소한 논문 2편을 게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다. 그때문에 모든 수험생들이 많은 논문을 만들어 투고했다. 따라서 이 규칙을 시행한 1975년부터 논문편수가 거의 두배로 늘었고 해부병리와 임상병리의 응시자 수가 점차 증가하면서 1982년에는 1년동안 급기야 123편의 논문이 학회지에 실리게 되었다. 1983년부터는 임상병리학회지가 분리됨에 따라 다시 73편정도로 줄었으나 1982년도는 현재까지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된 해였다.

3. 영문논문

영문원고는 제2권(1968)에 노선주선생의 동맥경화증의 이론에 관한 것을 제외하곤 없다가 제4권(1970)에 이수영, 김영계 교수의 논문이 있었고, 제6권(1972)에 박희영 교수의 2논문이 실렸으며 제8권(1974)에 김재식 교수의 전기영동법에 관한 논문이 소개되었다. 국내 증례를 토대로한 회원의 영문원고는 제9권(1975) 안공환 교수의 *intraosseous lipoma*가 처음이었다. 그후는 매년 1~2편의 영문 논문이 게재되었는데 1976년 1편, 77년에 3편, 1978년에 2편, 1979년에 2편, 1980년에 2편이었다가 1984년에 1편으로 줄고 다시 1985년에는 없고, 1986년에 4편, 1987년에 6편, 1988년에 10편, 1989년에 4편 그리고 1990년에 5편에 이르다가 1991년부터는 편집위원회에서 영문원고를 받지 않기로 방침을 바꾸었고, 그대신 1년에 한번 영문판을 낼 것을 고려하기로 정한 바 있다.

학회지의 편찬진

1. 발행인

학회지가 병리학회의 공식 학술지이기 때문에 발행

Table 1. The articles published in the first issue o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uthor(s)	Title
대한병리학회	대한병리학회 연역
박세욱	항암제가 면역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상인, 이종수, 지제근	폐암종의 병리조직학적 검색
이제구, 이상국, 지제근	연부조직종양의 병리조직학적 검색
김기홍, 박정옥, 이인희	유아방광에 발생한 <i>Sarcoma botryoides</i>
소문석	<i>Atheromatous embolism</i> 12 부검례의 보고
이규선, 지제근	선천성 횡격막탈장에 수반되는 폐발육부전증

Table 2. Number of Papers per Issued Number by Year

Year	Articles	Pages	Issues	Copies
1967	6	48	2	500
1968	18	136	2	500
1969	10	65	2	500
1970	16	155	2	500
1971	16	164	2	500
1972	13	169	2	500
1973	11	137	2	500
1974	17	163	2	500
1975	29	258	2	500
1976	33	283	2	500
1977	40	405	4	500
1978	47	453	4	500
1979	53	515	4	500
1980	57	468	4	500
1981	60	517	4	500
1982	123	894	4	500
1983	73	505	4	500
1984	67	470	4	500
1985	71	481	4	500
1986	72	503	4	500
1987	44	319	4	500
1988	74	511	4	500
1989	61	493	4	500
1990	63	512	4	500
1991	(79)	(495)	(6)	500
	1,075	8,624	76	

Table 3. Publishers o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nd years of service

Year	Name	Year	Name
1967~1970	이제구	1980~1981	정재홍
1970~1971	김영재	1981~1982	백승룡
1971~1972	김동식	1982~1983	이종무
1972~1973	정창수	1983~1984	조규혁
1973~1974	김기홍	1984~1985	최진
1974~1975	홍석재	1985~1986	손태중
1975~1976	안부호	1986~1987	최인준
1976~1977	구국희	1987~1988	김상호
1977~1978	이상국	1988~1989	함의근
1978~1979	김중명	1990~1991	이태숙
1979~1980	이유복	1991~	고일향

인은 역대 학회장이 당연직으로 맡았다. 따라서 이제 구 교수가 1967년부터 1969년까지 3년동안 근무한 것 말고는 1970년부터 역대 회장이 각 1년씩 근무하였다(Table 3).

2. 편집인

지난 25년동안 10명의 편집인(편집위원장)이 학회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했다(Table 4). 초대 편집인은 김상인 교수였다. 당시 서울의대 전임강사였던 김상인 교수는 편집의 중책을 맡아 산고의 어려움과 함께 그후 3년간 편집책임을 맡았다. 1970년 제2대 편집인부터 회장의 임기가 1년씩 되면서 주로 학회 총무가 편집인이 되어 일을 맡아 오다가 1976년에 이르러(10권 2호) 발행진이 새로이 구성되어 학회지 발간 업무를 전담했고 합의근 교수가 그 일을 맡았다. 그후 간행부가 생기면서 간행부장이 편집인을 맡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5년간 오랫동안 편집인으로 활약을 한분들은 김용일(7년), 이종달(4년), 최인준(4년)교수로서 이분들은 모두 학회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1988년 22권 3호부터는 편집간사제가 처음 도입되어 송계용 교수가 현재까지 수고하고 있다.

Table 4. Editors o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nd years of service

Succession	Name	Duration of service
1대	김상인	1967. 9.~1970. 6.
2대	이수영	1970.12.~1971. 6.
3대	이유복	1971.12.~1972. 6.
4대	이상국	1972.12.~1973. 6.
5대	김용일	1973.12.~1976. 3.
6대	합의근	1976.11.~1977.12.
7대	이종달	1978. 3.~1978. 9
8대	조한익	1978.12.~1979. 9.
9대	최인준	1979.12.~1980. 9.
10대	이종달	1980.12.~1981. 9.
11대	최인준	1981.12.~1984. 6.
12대	이종달	1964. 9.~1986. 9.
13대	김용일	1986.12.~1990.12.
14대	박찬일	1991. 2.~현재

3. 편집위원

창간당시부터 학회지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위원들은 모두 62명이었다. 이들이 참여한 연도와 기간을 연도별로 정리하면 Table 5와 같다. 특히 이종무 교수는 창간호에서 시작하여 별세하시던 해까지 15년간을 편집위원으로 수고했다. 그는 모든 편집회의에 열성을 다하여 참석하고 좋은 의견을 밝혀 학회지 발전에 공이 컸다고 한다. 15년이상 편집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은 김용일(18년), 강득용(17년), 합의근(15년)교수 등이다. 창간호부터 현재까지 총 57명의 편집위원들이 평균 4년씩 근무하였으며 초창기에 수고하시던 편집위원중 이미 일곱분이 타계하셨다.

4. 편집대행사 및 출판사

학회지는 처음부터 실제의 편집실무, 인쇄, 제본, 배부등 일체학회지 관련 사항을 대행하는 회사가 있었다. 병리학회지는 창간호부터 중앙의학사에 이를 맡겼는데 특히 장식태씨는 학회지 창간당시부터 본 학회지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다. 그후 1969년 여문각이란 도서출판사를 장식태씨가 개설함에 따라 학회지도 3권 1호부터 여문각에 편집대행을 맡겨왔다. 초창기의 어려움은 원고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발간 비용에도 있었으며 당시에는 인쇄비 등을 제시간에 받은 적이 별로 없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여문각은 이후 12년동안 학회지를 위하여 수고가 많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시절에 학회와 동고동락 하였다. 1980년부터 현재의 의학문화사가 편집대행을 맡고 있다. 실제로 편집대행사들의 역할은 대단히 컸고 그동안 학회지 전담 위원이 전무한 학회로서는 이들 편집대행사에게 의존한 바 컸다.

5. 배포 및 배포처

학회지는 모든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그때 그때 배부되었고 그 외에는 국내 의학관계 도서관에 보내고, 과기총(보조비를 받음)과 의학협회에 보내지고 있다. 국외로는 일정하게 배포되는 것이 없다가 1991년 Excerpta Medica에 등록되면서 여기에 나간다. 한편 1991년부터 중국의 연변의료원에 보내고 있다.

Table 5. Members of Editorial Board of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nd their years of service

Succession	Name	Years of service	Succession	Name	Years of service
1.	이제구	1967	32.	고일향	1978~1990
2.	김기홍	1967, 1973~1974	33.	김중명	1978
3.	홍석재	1967~1970, 1975	34.	이중달	1978, 1981~
4.	이종무	1967~1978, 1982~1984	35.	문영희	1978, 1982~1988
5.	이상국	1967~1977	36.	김정숙	1979~1980
6.	김상인	1967~1978	37.	조명준	1979~1981
7.	강득용	1968~1970, 1972~1985	38.	양문호	1982~
8.	김동식	1968~1972	39.	김주성	1983~1990
9.	남천우	1968~1970	40.	김상호	1986~1987
10.	정창수	1968~1973	41.	박찬일	1986~1990
11.	최일훈	1968~1972	42.	유주용	1986~1990
12.	박승함	1970~1972	43.	이태숙	1986~1988
13.	이규선	1970~1971	44.	서인수	1988~1990
14.	이수영	1970~1971	45.	최호열	1988
15.	김지환	1971~1972	46.	김종만	1988~1990
16.	이유복	1972~1975, 1978	47.	이갑노	1988~1989
17.	백승룡	1972~1974, 1976~1978	48.	김인선	1989~
18.	함의근	1972~1973, 1976~1988	49.	문세광	1989~
19.	김용일	1972~1976, 1978~1987, 1991~	50.	이선경	1989~1990
20.	윤택구	1973~1974	51.	장은숙	1989~1990
21.	이대일	1973~1976, 1982~1990	52.	장자준	1989~
22.	문국진	1975	53.	정상우	1989~
23.	조규혁	1975	54.	강대용	1991~
24.	허만하	1975~1976, 1982~1990	55.	김상호 (가톨릭 의대)	1991~
25.	안부호	1976	56.	김태승	1991~
26.	최인준	1976, 1979~1985	57.	박문향	1991~
27.	강상균	1976, 1991~	58.	박성희	1991~
28.	구국희	1976~1977	59.	서재홍	1991~
29.	이삼열	1976~1985	60.	원남희	1991~
30.	지정희	1976~1977, 1991~	61.	이광길	1991~
31.	지제근	1976~	62.	한운섭	1991~

게재 논문의 분류

1079편의 논문을 중심단어에 따라 그리고 저자에 따라 분류한 것은 이미 학회에서 발간한 총색인집에 있기 때문에 본 난에서는 일반적 병리학교과서의 목차에 따라 넓은 의미의 분야별로 검토하고자 한다 (Table 6).

1. 실험병리학과 인체병리학(해부병리학, 임상병리학)

병리학의 뿌리가 인체병리학인가 실험병리학인가에 대하여는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겠으나 근대적 병리학이 비르호의 세포병리학에 근간을 두었다고 생각할 때 병리학의 시작은 인체의 질병에 대한 형태학적 관찰에 근거를 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병든 장기조직의 형태학적 기술과 더불어 그 원인과 기전을 알기 위한 노력이 인체 이외의 동물을 이용하여 시행되면서

Table 6. Classification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by years of publication*

Published Year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Total
1. Cell Injury & Adaptation						2	0	1	3	1	5	1	0	1	0	0	0	0	0	0	0	2	5	4	(1)	25
2. Circulatory Disturbance	1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1	0	0	1	2	0	0	7
3. Genetic & Metabolic Disease				1	0	0	0	0	0	1	0	0	0	0	0	2	0	1	1	3	2	1	1	6	0	19
4. Immunologic Disorder	1	2	0	1	0	2	1	0	0	0	2	0	1	1	0	1	0	0	0	2	0	2	1	1	0	18
5. Tumor	4	6	3	3	1	4	7	3	8	10	15	24	22	17	47	26	26	34	39	21	40	19	26	(46)	409	
6. Infectious Disease(Bacteria)				1	0	0	0	0	1	0	2	1	1	1	2	1	0	1	1	3	0	1	1	3	(2)	20
7. Infectious Disease(Virus)	1	0	0	0	0	0	0	0	1	0	1	1	0	0	0	1	0	1	0	2	0	0	0	1	(1)	9
8. Infectious Disease(Fungus)										1	0	2	2	2	2	2	1	1	2	1	1	2	2	1	(2)	22
9. Infectious Disease(Parasite)						1	0	0	0	0	1	2	0	0	1	0	2	1	0	0	3	2	0	(1)	13	
10. Nutritional Disease																	1	0	0	0	0	0	0	0	1	
11. Enviromental Disease		1	0	2	1	0	0	1	3	0	2	0	1	0	1	4	1	0	2	0	2	2	1	1	(2)	25
12. Pediatric Disease	2	2	3	1	1	1	0	1	0	1	2	1	3	5	5	7	8	8	9	11	4	3	12	7	(5)	97
13. Fetus & Placenta		1	0	0	1	0	0	0	0	0	1	0	2	0	1	1	2	1	2	2	3	1	1	5	(2)	24
14. Teratology	1	1	3	0	1	0	0	0	0	0	0	0	1	7	4	6	9	7	3	8	0	8	5	1	(8)	65
15. Cardiovascular System	1	1	1	1	1	0	0	0	2	0	2	0	1	2	1	2	3	6	3	2	2	3	4	2	(4)	40
16. Respiratory System	2	0	1	0	2	0	1	0	3	1	4	1	2	0	1	3	5	7	3	5	2	3	4	4	(10)	54
17. Oral Cavity				1	0	0	0	1	1	0	0	0	0	2	3	0	2	0	0	4	1	1	2	2		20
18. Ear, Nose & Throat		1	0	1	0	0	0	0	0	0	0	1	0	0	1	1	2	1	0	2	0	1	2	1		14
19. Gastrointestinal Tract		3	1	1	1	0	1	0	2	2	4	5	4	6	4	10	5	18	13	5	5	7	6	7	(13)	110
20. Hepatobiliary System		1	0	2	3	3	1	2	0	4	1	3	5	3	4	10	3	4	8	9	4	5	8	6	(16)	89
21. Pancreas				1	0	0	0	0	0	0	1	0	0	1	0	2	2	2	1	1	1	0	2	2	0	16
22. Kidney		1	0	1	0	1	1	0	0	0	1	1	2	2	2	5	3	4	4	4	2	2	3	3	(5)	42
23. Lower Urinary Tract									1	0	0	0	0	2	1	1	3	0	0	0	3	4	0	2	(1)	17
24. Lymphoid & Hematopoietic System		2	1	0	0	2	2	4	1	2	4	2	3	3	5	10	7	3	3	8	3	3	2	3	(3)	73
25. Male Genital System				1	0	0	0	0	0	1	2	2	1	1	2	4	2	1	0	2	1	1	0	3		24
26. Female Genital System		1	0	0	0	3	0	3	2	3	2	6	6	5	1	6	7	4	8	6	4	7	5	11	(10)	90
27. Breast				1	0	1	0	1	1	2	1	0	1	1	1	0	0	2	1	2	5	2	0			22
28. Thymus									1	0	0	1	0	0	0	1	1	2	0	1	0	0	0	1	(1)	8
29. Thyroid						1	0	0	0	1	1	1	0	2	3	0	1	2	0	0	1	1	0	(2)		14
30. Adrenal		1	0	0	1	0	0	0	0	0	0	1	0	1	1	1	1	0	0	0	0	1	1	0	(2)	9
31. Pineal																		1	0	0	0	0	0	0		1
32. Skin					1	0	0	0	0	1	0	1	3	1	0	2	2	1	1	7	2	3	4	6	(5)	35
33. Soft Tissue		1	0	0	0	0	0	2	0	0	0	1	2	2	1	3	1	0	1	4	2	5	1	1		27
34. Bone & Joints				1	0	0	0	0	1	1	0	0	2	2	3	5	0	4	3	1	2	6	0	0	(1)	31
35. Skeletal Muscle		1	1	0	0	1	0	0	0	0	0	0	0	1	0	2	0	0	0	4	0	0	0	0		10
36. Nervous System					1	0	1	0	6	2	0	1	5	5	10	5	1	5	3	1	13	5	6	(7)		70
37. Eye											1	1	0	0	4	1	1	0	1	1	0	2	0	(1)		12
38. History		1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0	1	0	(1)	3
39. Animal Experiment		1	3	0	4	5	5	2	4	5	2	8	2	0	2	2	4	3	7	3	5	3	3	0	(9)	73
40. Forensic Pathology			1	2	2	0	0	0	0	0	0	1	0	0	0	0	0	0	1	0	0	0	0	0		7
41. Electron Microscopy				2	2	0	1	3	1	5	1	0	1	0	4	1	5	3	4	1	3	6	1	(1)		44
42. Cytology										1	1	1	1	0	0	0	0	0	1	3	4	3	6	(1)		21
43. Miscellaneous				1	0	0	0	0	0	1	0	1	0	1	1	1	1	5	2	1	1	1	1			18
44. Clinical Hematology		2	1	2	0	0	0	1	5	5	3	6	2	6	3	12	2	4	0	0	0	0	0	0		54
45. Clinical Bacteriology & Serology		1	0	1	1	1	0	0	6	4	2	9	8	9	14	17	13	6	0	0	0	0	0	0		92
46. Clinical Chemistry			1	2	3	0	1	2	2	2	2	3	6	3	5	14	4	2	1	0	0	0	0	0		53
47. Clinical Pathology, General			1	0	0	0	0	0	1	0	1	1	0	0	2	1	1	1	0	0	0	0	0	0		9
Total number of papers*	6	18	10	16	16	13	11	17	29	33	40	47	53	57	60	123	73	67	71	72	44	74	61	63		

* One article is classified one or more

이와같은 동물실험이야말로 연구의 진수라고 여겨져 왔다. 한편 인체병리학은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주로 진단병리학의 개념을 확장시켜 마치 인체병리학이 병원의 환자의 진료를 더 잘하게 하여주는, 즉 생검조직을 관독하는 병리학이라고 잘못 이해되기도 하였다. 사실 근대병원에서 진단병리학의 중요성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히 평가되고 있으며 실제로 1960년 이래 우리나라에서 많은 병리학자들이 진단병리학에 매달렸고 또 열심히 공부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나라 진단병리학 분야가 국제적으로 크게 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실험병리학과 인체병리학은 비록 같은 병리학자가 두가지 일을 모두 혹은 동시에 하지는 않더라도 서로 보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의 조화된 발전이 그나라 병리학의 앞날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실험병리학이 모두 동물실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회지에 게재된 동물실험에 대한 논문을 보면 창간호부터 시작하여, 1968년에 3편(17%), 1970년에는 4편(25%), 1975년에는 5편(17%)이다가 1980년대에 이르러 점차 2~4편으로 줄었고 기타 논문편수의 증가에 따라 전체 논문에 대한 비는 4~5%가 되었다. 이는 물론 회원의 실험연구가 학회지의 기타 학술지에 게재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결론짓기는 어려우나 1950년대와 1960년대에 하던 식의 연속된 일련의 실험이 아니고 한번 실험으로 끝나는 학위를 위한 동물실험 논문은 줄어들고 있음은 확실한 것 같고 그대신 분자생물학적 실험기법을 이용한 실험논문이 늘고 있다.

해부병리학을 다시 외과병리학, 세포병리학으로 나눌 수 있겠으나 초창기부터 외과병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포병리에 관한 논문은 1977년 이동화 교수 등의 "폐암의 세포병리학적 진단에 관한 연구"가 처음이었고 이후 매해 1편 정도 게재되고 있었다. 흡인세포검사가 보편화하면서 이방면의 논문이 점차 증가하였다. 1986년 대한세포병리학회와 대한병리학회에서 독립되면서 1990년부터는 따로 대한세포병리학회지를 발간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전자현미경이 들어와서 병리학연구에 이용되어 그 논문이 처음 학회지에 실린 것은 1971년으로 연세대 남상혁선생의 "Vitamin A의 대량투여가 백서간세포의 lysosome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자

현미경적 연구"와 김창의 선생의 "glucocorticoids에 의한 간세포 투명팽대의 본질"이었다. 1975년부터는 경북의대 병리학교실에서 전자현미경을 이용한 좋은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1980년대에 이르러 일반 진단병리학에 전자현미경이 이용되고 있음을 게재된 논문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임상병리학 분야는 1968년부터 임상혈액학을 중심으로 논문이 매해 2~5편 게재되었으며 1975년에 이르러 갑자기 그 숫자가 늘어서 1982년에 이르러 임상혈액학 12편, 임상미생물학 및 혈청학 17편, 임상화학 14편, 기타 1편으로 총 44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즈음에 임상병리학회와 분리독립되어 대한임상병리학회지가 창간되고 자연히 학회지에 실리는 임상병리학의 논문도 감소되어 1985년 1편을 마지막으로 게재되지 않고 있다.

2. 총론과 각론의 비율

학문이 조화있게 발전하여야 하는 것 같이 병리학은 기초의학이란 입장과 임상적 진단병리학적 입장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총론적인 것과 각론적인 것이 비슷한 비율로 나아가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도 학회지를 통하여 볼 때 총론 즉 기초병리학적 연구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빈약하여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포손상, 염증, 순환장애, 대사등에 관한 기본병리를 다룬 연구가 거의 없다. 그중에도 종양과 기형에 관한 것이 있을 뿐이다.

한편 각론에 있어서는 상당히 활발한 논문게재가 있는데 특히 집중되어 있는 계통은 위장관계 그중에서도 위, 간담관계중 간, 림프조혈계, 여성생식계, 신경계 그리고 소아병리계통이다. 이러한 경향은 학술대회 발표연계에서도 현저히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중에서 특히 위와 간과 관련된 연계나 논문이 전체의 약 20~30%를 차지하고 있다. 흥미롭게도 이들 연계수가 많은 계통은 그동안 연구회가 발족되어 독자적 모임을 가지고 있다. 유감스러운 것은 심맥관계, 내분비계 및 특수감각계의 논문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이것은 논문의 자료가 대부분 수술적으로 제거된 것이며 부검례가 절대부족한 한국의 여건과도 관계있는 듯하다. 이에 비하여 그 부검례가 비교적 많은 태아 및 소아부검 자료를 바탕으로한 소아병리나 기형에 관한 논문은

정상 빈도를 나타나고 있다.

총괄컨데 그동안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중 새로운 성적을 담고 있는 국제수준의 원저 논문의 숫자는 만족할 정도가 결코 아니다. 외국문헌에 인용되고 있는 논문은 거의 없으며 계통적 연구를 통하여 한 방향의 연구를 진행시킨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 논문의 주종을 이루는 진단병리학과 관련된 논문은 초창기에는 병원 자료를 토대로 한 증례보고 내지 증례들의 통계적 분석이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외국에서 이미 오래전에 되어 있던 것을 한국의 증례로 확인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창기에서는 보고하는 증례의 대부분이 한국 최초례가 되었다.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임상적 진단에 비하여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느나라나 학문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한 과정이라고 판단되어 그런대로 의미가 컸다고 생각되며 연전에 발간된 우리말 병리학 교과서도 이러한 증례가, 특히 각론에서 바

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한단계 도약할 시기라고 본다. 즉 회귀하다는 것 때문에, 증례가 많다는 것 때문에, 한국증례이기 때문에 발표하는 논문은 점차로 줄이고 새롭고 중요한 정보로서 세계문헌적 가치가 있는 비중 있는 논문이 많이 게재되어야 할 것이다.

3. 게재된문의 기관별 분류(Table 7)

학회지의 창간사에도 언급되었던 것 같이 대한병리학회 재래의 병리학 즉 의과대학의 기초교실로서의 병리학의 개념에 따라 그 학문활동을 하는 학자들과 병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환자의 진료에 직접 연관되는 병원병리학(진단병리학)의 개념을 가지고 병리학을 하였고 또 하여야 겠다는 학자들이 섞여서 학회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창간 무렵에는 물론 그후에도 한동안까지 개념의 확립이 없이 각자가 근무하는 기관의 특수성등에 따라 병리학을 몇가지 분야로 분리

Table 7. Number of Articles Submitted to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According to the Institutions and Departments, in Chronological Order of Submission of the First Article

Institution	Year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Total
	1. 서울의대 병리		3	7	6	1	0	2	6	4	2	4	6	6	8	7	6	13	14	19	17	26	13	15	15	16	(17)
2. 우석의대 임상병리		1	2	0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3. 전주예수병원 병리		1	2	0	0	0	0	0	0	0	0	0	0	0	2	2	0	0	0	0	0	0	1	1	1	0	10
4. 이화의대 병리		1	1	0	0	0	0	0	0	2	1	0	0	1	2	2	4	1	1	0	0	0	0	0	0	0	16
5. 국립의료원 병리			2	0	1	2	1	0	0	0	2	3	2	1	1	4	3	5	1	2	0	1	2	2	1	0	36
6. 우석의대 병리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7. 경북의대 임상병리			1	1	1	2	0	0	2	3	4	0	2	5	1	1	4	2	2	0	0	0	0	0	0	0	31
8. 이화의대 임상병리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3
9. 우석의대 법의학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0. 연세의대 임상병리				1	0	0	0	0	0	2	2	2	6	3	6	6	5	5	1	0	0	0	0	0	0	0	39
11. 서울의대 임상병리				1	3	0	1	0	3	5	7	3	0	4	5	4	11	3	2	0	0	0	0	0	0	0	52
12. 가톨릭의대 병리					5	5	1	1	0	2	0	0	2	2	4	2	1	0	0	0	2	0	0	0	2	(5)	29
13. 연세의대 병리					2	5	5	4	3	3	4	2	3	2	2	4	7	4	4	14	12	6	6	10	12	(12)	114
14. 고려병원						2	0	0	1	0	0	0	0	0	3	0	0	0	0	0	1	0	0	1	0	8	
15. 고려의대 임상병리						1	1	2	2	2	2	5	3	3	3	7	5	1	4	1	0	0	0	0	0	42	
16. 조선의대 임상생화학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7. 국군수도통합병원							1	0	1	0	0	0	0	0	0	0	0	0	0	1	0	0	0	0	0	3	
18. 가톨릭의대 임상병리								1	0	1	3	2	6	8	2	10	7	6	6	4	4	7	8	3		78	
19. 중앙의대 병리								1	1	0	0	0	0	0	2	3	1	1	0	0	0	3	4	5	(3)	21	
20. 대구동산기독병원, 계명의대 병리									1	0	0	0	0	4	0	1	3	1	2	3	6	4	4	1	4	(1)	34
21. 경북의대 병리										3	1	4	0	0	2	0	4	4	2	3	1	1	1	2	1	(3)	29
22. 부산의대 임상병리											2	1	0	2	2	2	3	5	2	3	1	0	0	0	0	0	23

Table 7.

Institution	Year																					Total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23. 한일병원 임상병리									1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4. 충남의대 임상병리									1	0	0	0	2	0	2	1	1	0	0	0	0	0	0	0	0	7		
25. 한양의대 임상병리									1	0	4	6	3	3	3	8	4	2	0	0	0	0	0	0	0	34		
26. 부산의대 병리									1	2	2	0	0	1	2	3	3	3	3	3	0	2	2	2	(4)	26		
27. 고려의대 병리									2	1	2	1	0	0	1	0	0	0	2	3	8	2	4	(5)	26			
28. 보스톤 아동병원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29. 대구파티마병원 병리									1	3	0	0	0	0	1	0	1	0	0	0	0	0	0	0	(1)	6		
30. 전남의대 병리										2	2	0	0	2	1	0	2	2	0	6	1	2	1	(2)	21			
31. 경희의대 병리									3	0	2	1	0	3	1	2	0	4	0	3	0	1	(5)	20				
32. 충남의대 병리										2	0	0	1	1	4	2	0	0	0	2	1	1	(1)	14				
33. 국립의료원 임상생화학										1	1	1	1	4	1	0	0	0	0	0	0	0	0	0	9			
34. 전남의대 임상병리											3	0	3	6	1	1	0	2	0	0	0	0	0	0	16			
35. 조선의대 병리										2	1	0	2	1	2	2	1	1	5	4	0	(1)	21					
36. 인제의대 병리												3	1	2	1	4	5	3	3	2	3	5	(4)	32				
37. 중앙의대 임상병리										2	0	0	0	2	0	0	0	0	0	0	0	0	0	4				
38. 순천향의대 임상병리										1	0	4	1	1	1	1	1	0	0	0	0	0	0	9				
39. 인제의대 임상병리														1	0	0	1	0	0	0	0	0	0	2				
40. 조선의대 임상병리														2	0	0	0	0	0	0	0	0	0	2				
41. 경희의대 임상병리														2	0	2	0	0	0	0	0	0	0	4				
42. 전북의대 병리														2	0	2	1	1	0	0	2	1	0	9				
43. 메리놀병원 임상병리																2	0	0	0	0	0	0	0	2				
44. 을지병원 임상병리																2	0	0	0	0	0	0	0	2				
45. 한양의대 병리																2	0	1	6	3	0	1	2	8	(2)	23		
46. 원자력병원 병리																1	0	0	0	0	2	2	1	(4)	6			
47. 전주예수병원 병리																2	2	1	0	0	0	0	0	5				
48. 전북의대 임상병리															1	0	1	0	0	0	0	0	0	2				
49. 한림의대 병리																	3	0	1	1	0	1	1	0	(1)	7		
50. 원호병원 임상병리																		1	0	0	0	0	0	1				
51. 광주기독병원																			1	1	0	0	1	0	0	3		
52. 고신의대 병리																			1	0	2	0	1	1	1	0	6	
53. 일본의대 병리																			1	0	0	0	0	0	1			
54. 마신고려병원 병리																			1	0	0	0	0	0	1			
55. 경상의대 병리																				2	1	1	1	0	0	(3)	5	
56. 미국미스홀리주로비던스병원																					1	0	0	0	0	1		
57. 텍사스엠디앤더슨병원																					1	1	0	0	0	0	2	
58. 성모자애병원 임상병리																					1	1	0	0	0	0	2	
59. 육군과수소 법의																						1	0	0	0	0	1	
60. 연세치대 구강병리																						1	0	0	0	0	1	
61. 원주의대 병리																						1	0	2	1	1	0	5
62. 순천향의대 병리																						1	2	3	1	2	0	9
63. 영남의대 병리																							2	2	1	0	(3)	5
64. 인하병원 병리																							1	0	0	0	1	
65. 부산성분도병원 병리																								1	0	0	1	
66. 제일병원 병리																								1	0	0	1	
67. 충북의대 병리																								1	0	0	1	
68. 인천길병원 병리																								1	0	0	1	
69. 서울의대 구강병리																									2	1	0	3

하려는 노력이 현저하였다. 이런점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임상병리학 분야였다. 우리나라의 임상병리학이 최초에 어떤 경로로 들어와서 정착이 되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으나 이것이 병원병리입장에서는 해부병리에 대한 임상병리가 아니라 기초병리학에 대하여 병원병리학 내지 응용병리학이란 개념으로 인식되어 한때는 외과병리, 부검, 세포병리등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임상병리학이라고 주장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와중에서 병원마다 혹은 학교에서도 임상병리과가 분리 독립되는 경향이 눈에 띄게 되었고 따라서 임상병리학회와 병리학회에서 독립되는 1982년까지는 논문을 제출하는 기관의 부서명이 아주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임상병리과에서 제출한 논문이면서도 그 내용은 해부병리에 관한것이 이 시기에는 허다하였고 지금까지도 극소수 기관에서는 그런 상태로 있다.

창간해인 1967년에는 논문제출 연구기관이 4기관이었던 것이 해가 갈수록 기관수가 증가하여 70년대에 13기관, 75년에 25기관, 80년에 38기관, 85년에 60기관이었다가 1990년에는 70기관에 이르게 되었다 (Table 7). 물론 이중에는 한번만 게재한 기관도 있지만 비교적 꾸준히 참여한 기관도 많다. 그동안 몇몇 대학이 주도하던 논문게재도 근래에 와서 그동안 많이 늘어난 전국 각대학의 병리학교실과 종합병원의 병리과에서 골고루 참여하고 있음은 학회의 기관지로서 고무적이다.

기 타

1. 투고규정

창간호에는 투고규정이란 이름으로 14가지의 원칙적인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제2권에서 약간 개정되었는데 게재비에 관한 사항을 일괄하여 13조에 묶었다. 1980년 14권 2호로부터 투고규정이 한글로 바뀌면서 문헌인용 방법을 단행본, 국문잡지, 영문잡지별로 예를 들었고, 의학용어는 의학발간 의학용어집과 과학기술 용어집 2집을 준용하도록 개정하였다(1980년 6월 30일). 한편 대략 이시기부터 인용저자 및 잡지의 약자뒤에 점이나 콤마를 빼는 형태로 바뀌었다.

1983년 5월 26일 투고규정의 시행내규가 정해졌다. 여기에서는 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은 대한병리학회 학술대회 및 월례집담회에서 발표한 논문임을 원

칙으로 한다는 것과 사진은 옵셀 인쇄로 하되 가능한 논문 중간에 들어가게 하며, 짧은 증례보고 형식이 추가되었다. 이때부터 학회지의 모든 종이가 아트지로 인쇄하는 전산사식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부 록

1968년 처음으로 제2권 2호의 부록이 총 73쪽 발간되었다. 학회가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인 생검례 및 부검례에 의한 악성종양의 통계적 조사연구"였다. 이 조사연구는 1958년부터 1967년까지 10년동안 전국 각 의과대학 및 부속병원을 비롯한 17개 주요의료기관이 참가하여 총 21,921예의 생검과 287예의 부검을 토대로한 우리나라 최초의 전국 규모의 암 통계였다. 1968년 당시 학회가 이 만큼 합동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는게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1986년에는 지난 20년간의 학회지에 게재되었던 논문에 대한 총색인집(총 78쪽)을 발행하였다. 이것이 2번째 부록이었다. 그동안의 게재논문 총 761편을 게재순서대로 일련번호화 하고 이를 국영문으로 제목별로 그리고 중심단어 별로도 분류하였고 저자별 분류도 하여 찾아보기 쉽게 하였다.

그동안 학회지속에 포함시켜 제본하면 별도의 쪽 번호를 매겼던 학술대회 초록집은 1990년 부터는 합본하지 않고 별도로 발행하였으며, 1991년 부터는 학회지의 부록으로 발간하기로 하였다.

3. 기념호

1975년 간행된 9권 2호가 명예회장 윤일선 박사 80회 생신 기념특집으로 발간된 것이 유일한 것이다. 여기에는 당시 회장인 홍석재 교수의 송사를 곁들이고 약력으로 소개하였다.

4. 게재료

창간당시 게재료는 5쪽까지 무료 그 이상은 실비부담으로 되어 있다가 1975년(9권 1호)에는 "잡지발행에 관련된 제반 물가고의 상승으로 당분간 논문게재료를 저자 부담으로 한다고"되어 있다. 1973년에는 다시 게재논문의 비용을 학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편집후기가 있다. 그러다가 1975년에는 다시 "제반 물가고의 상승으로 당분간 논문 게재료를 저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음을 양지"하라는 공지사항이

편집자로부터 있게 된다. 한편 1975년 7월 28일 상임 위원회에서는 게재료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광고료를 알선한 경우에는 게재료를 면제키로 결정하기도 하였다. 9권 2호에서 적자 90,000원은 8개 기관에서 광고를 모집해서 충당하기로 한 것을 결의하였던 기록도 있다.

이상과 같은 사실을 볼 때 초창기 부터 현재까지 게재료에 대한 문제가 끈질기게 대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동안의 학회지를 보면 여러 광고면이 불규칙하게 들어가 있고 또 투고규정도 이 게재료 때문에 자주 바뀌었다. 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기금 모집을 했고 앞으로는 이 기금의 과실금을 통하여 회원들이 별책대 이외에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맺 음 말

우리나라 분과학회 학술지로서 대한병리학회지가 뒤늦게 발간되기 시작하였으나 1967년 창간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발전하여 왔다.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학회지가 결본없이 오늘까지 발행되었고 적극적이고도 성실한 편집위원들로 구성된 강력한 편집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국제적 잡지로서의 외형적 면모도 일단 갖추었다.

학회와 운명을 같이 한 학회지는 학회 자체의 학술활동의 중요지표가 되어 왔을 뿐 아니라 논문의 질적 향상이 꾸준히 이루어졌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학회지에 꼬박꼬박 발표되었다. 따라서 1991년 말로 통권 82권이 되는 학회지는 대한병리학회의 학술활동의 산 기록이다.

이런 발전이 있기까지 많은 회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역대 편집인들과 편집위원들의 노고가 돋보이고 적극 협조한 회원들의 정성이 밑거름이 되었다.

어려운 여건에서 발전을 하려면 시행착오도 없지 않다. 학술지 발간에 대한 충분한 사전지식이 부족하여 관계자들이 창간을 하고도 정기 간행물로 등록을 하지 않아 20여년간 정당한 정기 간행물이 되지 못했던 것, 사실상의 편집을 편집 대행사에 모두 맡겨 체제의 통일성이 부족했던 점, 잡지의 외형이나 주요내용이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채 변경된 점, 편집위원회가 오랫동안 거의 위원회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 그리고 토의자료나 회의내용등의 학회지와 관련된 기록이 거의 보존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앞으로 학회지의 목표는 당연히 우수한 국제 색인계통 즉 Index Medicus나 Science Citation Index 등에 등재되는 것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대한병리학회지가 전세계의 과학인구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의미 있는 학술지로서 발전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필자는 굳게 믿는다.

참 고 문 헌

- 대한병리학회 발행: 대한병리학회지 제1권-제25권 1967-1991
- 대한병리학회: 총색인 제1권-제19권(1967-1985), 1986
- 편집위원회 보고(1988-1989). 대한병리학회지 24: 331-335, 1990